

칼럼 Column

독서문화와 도서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다. 방송국에서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 각 신문사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등 IT분야로 몰던 기사를 매주 주말마다 '이제 다시 책이다'란 식의 'Books'라는 섹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독서관련 단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엔 검색포털 사이트에서도 독서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독서란 문자가 발명이 된 이후부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을까? 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독서의 장애요인이 많다. 예를 들어 TV 및 각종 유선방송 등 영상매체 시청과 컴퓨터를 통한 오락, 채팅 등 사이버 문화 만연으로 인해 독서시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또한 날로 과도해지는 입시경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또한 독서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처한 사회적 환경은 지식정보사회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독서가 중요하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서 다가올 미래사회는 문화콘텐츠기반 경제(Culture Contents-based Economy)로 이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는 물론 미래의 문화사회에서는 독서를 통한 지식 및 정보 획득과 문화적 경험 등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선진 각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까지 21세기 국가 비전의 성패가 창의력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

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독서력이 저하됨에 따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계에서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도서관계에서도 각종 독서문화 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독서운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독서진흥 관련 제도적 장치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법안들이 2005년부터 발의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어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서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아형성과 나아가서는 훌륭한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간 생활에 있어 절대적인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

독서는 좁은 개념에서는 단순히 책을 본다거나 읽는다는 것이나, 넓은 개념의 독서는 책을 포함한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과 나아가 문화, 사회 및 자연의 환경과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서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하는 개인의 전략적 사고과정이라

황금숙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협회독서문화위원장
gshoang@daelim.ac.kr



할 수 있다.

오늘날 독서는 평생교육의 기초 기술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서관의 일상생활화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독서행위란 매우 사적인 행위이지만, 책에 다가가게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서문화 환경 조성은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담보되어야 할 기본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독서의 본질(즐거움, 자율성, 무상성)을 왜곡한 여러 독서관련 정책이나 활동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독서이력찰’, ‘교과별 독서지도매뉴얼’,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독서능력검정시험’ 등은 결국 독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대입 위주의 줄 세우기식 교육 풍토 속에서 강요되고 획일화된 독서교육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이는 독서의 사교육화를 조장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독서습관을 들이는 최적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서 독서의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독서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도서관은 독서문화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도서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의 독서의 가치와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독서를 위한 공적인 장치는 높아진 독서욕구를 해결하기엔 현재로서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러한 열악한 도서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는 책과 미디어의 만남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독서문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독서문화가 지향해야 할 바는 기존의 학교 및 사교육시장에서 수행되어져 오는 ‘학습위주’ 및 ‘기능위주’의 독서교육과는 차별화된 독서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 정서함양,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바탕을 둔 건전하고 바람직한 독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독서본질에 충실한 독서문화가 뿌리를 내릴 때, 혼탁한 독서문화가 정화되어 삶의 본질과 맞닿은 독서 체험으로 ‘생애 독자’의 개발이 도서관의 ‘생애 이용자’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독서문화는 도서관의 일상생활화와 그 궤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독서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게끔 독서문화 환경(시설, 자료, 사람)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독서를 통한 자기 및 타인 이해와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올바르고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의 중심은 도서관이 해야 하고 그 주체는 사서이어야 한다. (☺)